

늘어나는 코로나 일상감염 프로야구 하반기 관창을까

NC는 추가 확산에 일부 선수 4주간 격리
후반기 개막 후 컨디션 조절 쉽지 않을 듯

방역수칙을 어기는 불미스러운 일로 KBO리그가 멈춰 섰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자면 전반기를 일주일 먼저 종료한 것은 신의 한 수처럼 여겨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주 넘게 1000명을 넘어서는 시국, KBO리그 선수들도 일상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반기 정상 진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정규 기준 KBO리그 1군 선수 및 코치진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에 달한다. 원정 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은 감염경로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 하지만 다른 이들의 경우 아직 역학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구단에서 개인진술 등을 종합해 파악한 바로는 일상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돌파감염에 확진된 NC 스태프의 사례도 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지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에선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일일 확진자가 23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 개막일은 8월 10일. 약 3주 남았는데, 그 안에 확산세가 꺾일 기미는 없다. 경기 진행 자체도 담보할 수 없다. 손질된 KBO 매뉴얼을 살펴보면, 한 구단에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1군 엔트리의 50% 이상일 경우 2주간 해당 팀의 경기를 순연하기로 했다. NC와 두산 베어스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단체종목인 야구의 특성상 한두 명이 확진된다면 집단감염 내지는 밀접접촉을 피할 수 없다.

설령 경기가 치러지더라도 현 시점에 나온 확진자들의 경기력에도 의문이 따른다. 특히 NC의 경우 첫 3인의 확진 후 전 선수단이 2주간 격리를 했는데, 19일 격리해제 직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선수는 최소 4주간은 격리를 거치는 셈이다. 하반기 개막은 물론 그 뒤에도 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NBA 파이널 | 밀워키, 피닉스 꺾고 챔프 등극



50년 만의 대권! 아데토쿰보 MVP

밀워키-피닉스의 2020~2021시즌 NBA 파이널 6차전이 21일(한국시간) 파이어브 포럼에서 열렸다. 밀워키 시내에 모인 팬들이 TV 중계를 지켜보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밀워키는 이날 승리로 50년 만에 NBA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밀워키(미 위스콘신주) | AP뉴시스

아데토쿰보, 6차전 50점 미친 활약 풀 분전한 피닉스 창단 첫 우승 실패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가 폭발했다.

밀워키 벅스가 21일(한국시간) 파이어브 포럼에서 열린 파이널 6차전에서 2020~2021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6차전 홈경기에서 50점을 쏟아낸 야니스 아데토쿰보(27·그리스)를 앞세워 105-98로 이겼다. 2연패 후 4연승을 거둔 밀워키는 1971년 이후 50년 만에 구단 역사상 2번째 NBA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다.

6차전에서 50점·14리바운드·5블록



밀워키 야니스 아데토쿰보가 2개의 트로피를 들고 포효하고 있다. 하나는 파이널 MVP 트로피다. 밀워키(미 위스콘신주) | AP뉴시스

킹으로 밀워키를 이끈 아데토쿰보는 파이널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2차례 정규리그 MVP에 오른 그는 첫

번체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NBA 최고 선수로 우뚝 섰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수비선수상을 받은 아데토쿰보는 하킴 올라주원, 마이클 조던에 이어 정규리그 MVP, 수비선수상, 파이널 MVP를 동시에 석권한 역대 3번째 선수가 됐다. 또 NBA의 전설적 센터 사킴 오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3차레나 한 경기 40점·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다. 조던, 르브론 제임스, 제리 웨스트, 리키 배리 등과 함께 NBA 파이널 무대 단일경기에서 50점을 기록한 역대 7번째 선수도 됐다.

1쿼터에 10점을 올려 밀워키에 29-16, 13점차 리드를 안긴 아데토쿰보는 2쿼터 7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밀

워키도 추격을 허용해 42-49로 역전을 허용한 채 2쿼터를 마쳤다. 하프타임 동안 재정비 후 코트로 돌아온 아데토쿰보는 3쿼터를 확실하게 지배했다. 3쿼터에 한 혼자 3점슛 1개를 포함해 20점·3리바운드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4쿼터에도 13점을 책임지며 재역전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4쿼터 초반 벤치에서 출발한 아데토쿰보는 84-82로 앞선 상황에서 코트로 돌아와 득점, 리바운드, 블로킹 등 공수에 걸쳐 맹활약하며 승부를 갈랐다.

피닉스에선 크리스 폴(26점), 데빈 부커(19점), 디안드레 에이튼(12점) 등이 고무 활약했지만 상대 에이스 제이메어 실버에 비하면 창단 후 첫 우승 도전을 마감하게 됐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전북은 송민규, 울산은 윤일록...누가 승자?

K리그 여름시장 선수등록 마감
1부 46명·2부 47명 새등지로

‘하반기 K리그 2021’ 추가 선수등록(6월 23일~7월 20일)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93명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등록을 마쳤다. 이 중 K리그1(1부)에선 46명, K리그2(2부)에선 47명이 새로운 등지로 향했다. 이로써 올 시즌 하반기 기준 K리그 등록선수수는 767명(K리그1 420명, K리그2 347명)이 됐다. K리그1에선 자유계약(FA) 신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수한 형태의 이적은 6명, 임대는 5명이었다.

●전북이나, 울산이나
K리그1의 ‘양강체제’를 구축해온 전북

K리그 주요 추가등록 현황	
K리그1	주요 영입
전북	송민규, 김진수, 사살락
울산	윤일록
수원FC	잭슨, 타르델리, 김수범, 김동우
인천	김창수, 강민수, 정혁
성남	권경원, 정석화, 여성해
서울	지동원, 가브리엘, 채프먼, 여름
강원	이정협, 츠베타노프
광주	조나탄
K리그2	주요 영입
부산	헤나토, 에드워즈
전남	김병오, 이석현, 임민혁
서울E	김민성, 유기, 이재혁, 이규로
대전하나	마사, 공민현
경남	설현진, 유강현, 이민기
안산	신재혁, 문경건
안양	박태준
아산	이규혁, 이현일

과 울산의 보강이 흥미로웠다. 전북은 도교유희에 출전한 국가대표 공격수 송민규를 몸값 20억 원, 계약기간 4년 6개월의 조건으로 영입하며 측면 강화 및 22세 이하(U-22) 활용에 대한 고민을 털었다. 이에 앞서 국가대표 왼쪽 풀백 김진수, 태극 국가대표 수비수 사살락을 데려왔던 전북은 최근 K리그2 김천 상무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문선민까지 합류해 스쿼드가 훨씬 두꺼워졌다. 울산도 프랑스 리그앙(1부) 몽펠리에에서 뛴 윙포워드 윤일록을 데려왔고, 김천에서 오세훈과 박용우를 합류시켰다. 전 포지션에 걸쳐 뚜렷한 보강이 이뤄졌다.

●해외파 컴백

유럽무대를 누빈 태극전사들이 여럿 K리그에 입성했다. 윤일록 외에도 지동원(FC서울), 권창훈(수원 삼성) 등이 있다. 10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지동원은 나상

호, 팔로세비치 등과 함께 서울 전방의 힘을 강화할 참이다. 울림픽대표팀 와일드카드 발탁된 권창훈도 하반기부터 친정의 중원을 누닌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에서 뛰던 전북으로 복귀한 김진수, 청두(중국)에서 광주로 임대된 조나탄도 있어 ‘돌아온 자’들의 뜨거운 함성이 예상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서울 이랜드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보강을 한 팀은 서울 이랜드다. 베테랑 날개 김민성과 일본 대표팀을 거친 유기, 이재혁과 이규로 등 5명이 영입돼 스쿼드에 목직함을 더했다. 정정용 감독은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이적시장의 소득을 밝혔다. K리그1에선 수원FC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타르델리와 잭슨으로 공수를 채우고, 김수범 같은 알짜배기를 데려와 반등을 꿈꾸게 됐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기결과											
프로축구 <20일>											
●팀순위						득점					
순위	팀	승	패	무	득점	실점	선수	팀	득점	실점	선수
1	울산	37	10	2	7	30	17	① 주민규	제주	10	① 김보경
2	전북	33	9	3	6	34	19	② 일류현고	전북	9	③ 라스
3	수원	33	9	5	6	30	20	④ 풀리치	성남	8	⑤ 송민규
4	대구	33	9	4	6	24	20	⑥ 송민규	포항	7	
5	포항	27	7	5	6	20	20				
6	수원	24	6	8	6	26	33				
7	인천	23	6	8	5	20	29				
8	제주	22	4	5	10	21	21				
9	강원	20	4	7	8	17	22				
10	성남	18	4	8	6	18	25				
11	서울	17	4	9	5	17	23				
12	광주	15	4	12	3	17	25				
메이저리그 <21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57	38	1	시카고W	58	37	1	휴스턴	58	38
2	탬파베이	56	39	2	클리블랜드	47	45	2	오클랜드	55	42
3	토론토	48	43	3	디트로이트	45	51	3	시애틀	51	44
3	뉴욕Y	49	44	4	미네소타	40	55	4	LAA	46	48
5	볼티모어	31	63	5	캔자스시티	38	55	5	텍사스	35	60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49	43	1	밀워키	56	40	1	샌프란시스코	59	35		
2	필라델피아	47	46	2	신시내티	49	46	2	LAD	59	37		
3	애들랜트	46	47	3	시카고C	47	48	3	샌디에이고	55	42		
4	워싱턴	45	49	3	St.루이스	47	48	4	콜로라도	41	54		
5	마이애미	40	55	5	피츠버그	36	59	5	애리조나	29	68		
●타격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타점					
타	율	홈	런	타	율	홈	런	타	율	홈	런		
① 브랜들리 (휴스턴)	0.336	① 오틀리 (LAA)	34	① 케레로 주니어 (토론토)	78	② 로토 (시카고W)	25	② 아브레우 (시카고W)	74	② 로토 (시카고W)	25	② 듀발 (마이애미)	67
② 케레로 주니어 (토론토)	0.328	② 케레로 주니어 (토론토)	31	③ 올슨 (오클랜드)	25	③ 오틀리 (LAA)	74	③ 에스코바 (애리조나)	65	③ 올슨 (오클랜드)	25	③ 에스코바 (애리조나)	65
③ 보가츠 (보스턴)	0.316	③ 올슨 (오클랜드)	25	④ 구리엘 (휴스턴)	0.316	④ 갈루 (텍사스)	24	④ 디버스 (보스턴)	73	④ 구리엘 (휴스턴)	0.316	④ 갈루 (텍사스)	24
④ 보가츠 (보스턴)	0.316	⑤ 디버스 (보스턴)	23	⑤ 콜레타 (LAA)	0.315	⑤ 디버스 (보스턴)	24	⑤ 헬시 (LAA)	66	⑤ 콜레타 (LAA)	0.315	⑤ 디버스 (보스턴)	24
●투수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탈삼진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시벨일 (클리블랜드)	10	① 린 (시카고W)	1.94	① 콜 (뉴욕Y)	158	① 유리아스 (LAD)	12	① 디고통 (뉴욕M)	1.08	① 윌러 (밀라델피아)	152		
② 홍 (뉴욕Y)	10	② 로토 (시카고W)	2.14	② 로토 (시카고W)	140	② 헨드릭스 (시카고C)	12	② 카우스먼 (샌프란시스코)	1.84	② 디고통 (뉴욕M)	146		
③ 오글렌드 (뉴욕M)	10	③ 콜 (뉴욕Y)	2.63	③ 레이 (토론토)	138	③ 데스클라니 (샌프란)	10	③ 우드러프 (밀워키)	2.04	③ 슈어저 (워싱턴)	142		
④ 이발트 (보스턴)	9	④ 김스 (텍사스)	2.86	④ 자울리토 (시카고W)	133	④ 볼러 (LAD)	10	④ 번스 (밀워키)	2.16	④ 번스 (밀워키)	140		
⑤ 류현진 (토론토)	9	⑤ 레이 (토론토)	2.93	⑤ 비버 (클리블랜드)	130	⑤ 커소 (LAD)	9	⑤ 로저스 (마이애미)	2.37	⑤ 카우스먼 (샌프란시스코)	138		

경기예고											
아마추어 경기예고 <22일>											
●축구											
●제 29회 백목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제주, 오후4시)				●제 3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상주실내체육관, 오후3시)				●제 57회 바블라트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제 3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상주실내체육관, 오후3시)				●제 57회 바블라트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57회 바블라트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중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 10시)				●제 2021 KPLGA 제 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군산, 오전 6시 15분)							